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	**보도자료**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2012년 1월 19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자료문의 : 부품소재총괄과 이승우 과장, 김상순 사무관(02-2110-5614)		

국내 소재부품기업들, 해외기업 M&A에 눈뜨기 시작

- 소재부품기업의 M&A, 기업의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부상
- 정부, 세계 M&A 시장 호황에 대비, 중소기업의 해외 M&A 적극 지원키로

□ 국내 한 중견 IT부품생산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일본기업의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(A/F 액추에이터)* 생산부문 인수에 성공하면서 올해 첫 번째 해외 소재부품기업 M&A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음

* A/F 액추에이터 : 초소형모터를 이용한 카메라용 자동 초점장치(Auto Focusing)

○ 그간 한국기업의 M&A에 일본기업들이 유독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는 한-일 소재부품기업간 M&A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전망임

○ 그동안 대기업들의 전유물로만 인식되었던 기업간 M&A가 국내 중소 소재부품기업들 사이에서도 신사업 발굴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전망임

□ 지식경제부(장관: 홍석우)는 1.19일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“국내 소재부품기업들의 M&A시장 진출 무엇이 문제인가?” 란 주제의 토론회와 함께 한-일 IT부품기업간 M&A 본계약 체결행사를 가졌음

○ 이날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는

- 지경부 김재홍 성장동력실장, 중소기업청, 삼일, 안진, ADL 등 M&A 자문사를 비롯해 정책금융공사, NH증권, KT 캐피탈 등의 투자기관 및 유니테크 등 해외 M&A에 관심이 높은 중소중견 소재부품기업들이 참석했음

[M&A의 필요성 및 국내 M&A 현실]

□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진보가 빠르게 일어나고 기술혁신의 수단이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업간 M&A가 매우 효과적인 기술혁신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

○ 국내 중소중견 소재부품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R&D외에도 M&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음

□ 또한 국내 소재부품기업들의 M&A가 부진한 이유로 M&A를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폐쇄적 기업문화, 천억원 이상의 대형 Deal만을 취급하는 국내 M&A 자문사들의 행태 외에도

○ M&A는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라는 M&A에 대한 맹목적 두려움, M&A에 대한 정보부족 등을 꼽았음

○ 특히, 국내 소재부품기업들은 해외 중소형 매물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중소형 Deal을 수행해줄 전문 M&A 전담기관의 부족으로 인해 M&A 자체를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

< 주요 논의 내용 >

◈ (기업) 유니테크 등 해외 M&A 추진 기업들은 “중소기업들은 M&A 매물기업 정보를 얻기 어렵고, 기업 내부적으로도 M&A의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전문 인력이 부족한 현실”을 지적

◈ (M&A 중개기관) 큐더스 김대중 대표는 “최근 국내중소기업들도 해외시장 진출 및 M&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,

- IB 및 대형증권사의 경우 1,000억원 미만의 소형딜에 대해서는 거의 컨설팅을 제공하지 못 하는게 현실“이라고 밝혔음

[소재부품기업의 해외 M&A 활성화를 위한 대책]

□ 향후 M&A 시장의 세계적인 대호황이 예견된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라 정부도 국내 소재부품기업들이 해외 M&A 시장에서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에 총력을 다 할 계획

< 세계 M&A 시장의 대호황 전망: Merger Wave >

○ 역사적으로 세계 M&A 시장은 호황기(boom)과 침체기(bust)로 뚜렷이 구분 ⇒ 현재까지 6차례의 Merger Wave 존재

○ 글로벌 기업들의 재무구조 건전화, 국제경쟁 치열화 등이 M&A 중요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, EU 재정위기·미국 경기침체 등이 회복될 경우 M&A 시장의 대호황이 올 가능성 존재 ⇒ 제7차 Merger Wave

(자료: 세계 M&A 시장 전망과 시사점, '11.11월 자본시장연구원)

□ 우선, 지경부는 올해 부품소재 M&A Desk사업에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

○ 전세계 44개 M&A 전문기관의 연합체인 「Global M&A와 전략적 MOU」체결을 추진하고, 50여개 해외 M&A 중개기관으로부터 M&A 매물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,

○ 국내 M&A 자문사를 중심으로 「중소형 M&A Deal 전문 컨소시움」을 결성하여 중소중견 소재부품기업들의 해외 M&A를 지원할 계획임

□ 둘째, 소재부품 기업들의 M&A를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인수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다양한 M&A 전문펀드 설립도 추진할 계획임

○ '11년 9월에 설립된 「제1호 한일 부품소재 상생펀드(1,000억원)*」에 이어 올해도 1,000억원 규모의 「제2호 부품소재 상생펀드」를 추가로 설립 추진

* 1호펀드: 정책금융공사(700억), kt캐피탈(150억), ORIX그룹(150억)('11. 9 결성)

□ 셋째, 중기청의 「중소벤처기업 M&A 지원센터」를 지경부의 M&A Desk사업과 연계하여

○ M&A 데스크를 통해 발굴된 해외 M&A 매물을 국내 중소중견 벤처 소재부품기업에 알선하는 등 지경부-중기청 M&A지원사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 시킬 계획임

□ 지경부 김재홍 성장동력실장은 기술진보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산업 환경에서 전통적인 R&D 외에도 M&A가 매우 효과적인 기술 혁신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,

○ M&A특성상 기업명을 밝힐 순 없으나 최근 일본이나 유럽, 중국 등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내 소재부품기업들의 해외기업 M&A 협상이 다수 진행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으며

- 이들 M&A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, 해당기업은 선진기술 확보는 물론 경영노하우 및 시장까지 함께 얻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음

○ 이에 따라 국내 소재부품 기업들도 M&A가 개방형 혁신(Open Innovation)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우리 중소 소재부품기업들도 M&A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

□ 한편, 지경부 관계자는 금번 토론회와 M&A 체결건으로 정부의 M&A 활성화 지원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

○ 국내 소재부품 기업이 우수한 해외 기업을 M&A 하는 성과가 더욱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

참고 토론회 행사 개요

□ 일시 및 장소 : 1월 19일(목) 12:00~13:20/그랜드인터콘H(2F) 카멜리아룸

□ 주요 참석자

○ 정부(5) : 성장동력실장, 부품소재총괄과장, 중기청 벤처투자과장 등

○ 기업(4) : 성호전자, 웨이브 일렉트로닉스 등

○ 관련 기관(8) : 삼일회계법인, KT Capital, 정책금융공사 등

□ 토론회 주요 내용

○ 주 제 : 소재부품기업의 해외 M&A, 무엇이 문제인가?

○ 주요내용

- 글로벌시장 진출 및 선진 기술 획득을 위한 M&A 전략
- 국내 소재부품기업의 해외 M&A 부진 요인 및 활성화 방안

□ 토론회 개최 의의

○ 국내 M&A 시장의 참여자(M&A 추진기업 및 중개기관 등)들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향후 정책 방향 구상

□ 토론회 일정(안)

시 간		내 용	비 고
12:00-12:10	(10분)	▶ 참석자 소개 및 인사말씀	사회자/실장님(3분)
12:10-12:17	(67분)	▶ 해외 M&A 추진시 기업이 가진 어려움(유니테크)	오찬・토론회 동시 진행
		▶ 중소형 M&A가 활발하지 않은 원인 및 대응방안(큐더스)	
		▶ 일본기업 M&A가 어려운 원인 및 대응방안(kt캐피탈)	
13:17-13:20	(3분)	▶ 마무리 말씀	실장님